

한전 에너지밸리 유치 기업 100곳 돌파

광주시·전남도·그린정보시스템 등 28곳과 MOU

1080억 투자 800명 고용 창출...총 105개 기업 유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 열쇠인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업체가 100곳을 넘어섰다.

빛가람에너지밸리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한국전력은 7일 나주 본사에서 그린정보시스템 등 28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MOU)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윤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임수경 한전KDN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한전이 나주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에 공장과 사무실을 마련해 고용 창출에 나선다.

또 한전과 지자체는 투자 기업이 성공적으로 에너지밸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약 체결 기업의 투자액 규모는 모두 1080억원이며 고용 창출 인력도 800여명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목표였던 50개 기업을 넘어서 77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번 협약을 더하면 모두 105개 기업이 나주 에너지밸리 투자를 약속했다.

105개 기업 전체의 투자액 규모와 고용 창출 효과는 각각 5341억원과 3837명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한전이 2020년까지 중소기업 500개를 나주와 광주 인근에 유치하고 3만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협약 기업 중 44개 기업이 이미 입주용지 매입을 마쳤으며 올해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나주 혁신산단 등 에너지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제품의 일정량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해 투자 기업들이 사업 초기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에너지밸리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광주·전남·KOTRA와 업무협력 협약도 했다.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내·외 투자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타깃 외국기업을 선정해 에너지밸리가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올해부터 유치기업의 실질적인 설비투자과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다"며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2016년 1차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협약식이 7일 오후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렸다. 조환익 한전사장, 김용국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사장, 윤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7.87 (+2.24)
- ↓ 금리 (국고채 3년) 1.50% (-0.02)
- ↓ 코스닥 672.21 (-1.63)
- ↓ 환율 (USD) 1201.40원 (-2.00)

외벌이 가구 소득, 맞벌이의 70%

전체 62%·월평균 374만원...주거비·의료비 지출 더 많아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맞벌이 가구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아 지출 규모도 작았지만 주거비는 더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1만 907원,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374만 466원이었다. 맞벌이 외 가구 소득이 맞벌이 가구의 69%인 셈이다.

맞벌이 외 가구에는 외벌이와 부자나 모자가 돈을 버는 가구, 무직 가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62.1%가 맞벌이 외 가구로 집계됐다.

소득이 낮다 보니 지출도 맞벌이 외 가구가 적었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맞벌이 가구가 295만 8225원, 맞벌이 외 가구는 232만 2214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출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비 등 필수 지출은 맞벌이와 맞벌이 외 가구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맞벌이



외 가구가 많았다. 주거·수도·광열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매달 27만 6486원 꼴로 썼는데, 맞벌이 외 가구는 27만 8066원으로 더 많이 지출했다.

특히 주거·수도·광열 지출 중 주택유지및수선,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연료비 등은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외 가구보다 많았지만 주거비만 보면 맞벌이 외 가구의 지출(7만 9471원)이 맞벌이 가구(6만 5625원)보다 많았다. 보건비도 맞벌이 외 가구가 17만 5069원으로 맞벌이 가구(17만 3203원)보다 소폭 많이 썼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소 신임 연봉, 대기업의 63%

평균 2455만원...연봉격차 전년보다 155만원 늘어

올해 대기업 신입직의 연봉이 평균 38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773만원보다 3.2% 인상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2천 455만원으로 대기업보다 1438만원 적었다. 기업간 연봉 격차는 지난해 1283만원보다 더 커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거주 기업 301개사(대기업 150개사·중소기업 113개사·공기업 38개사·외국계 17개사)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기업의 4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으로 기본급여는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4년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3228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같은 조사 결과(3048만원)보다 5.9% 올랐다. 대기업이 3천 8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 3288만원, 외국계 3277만원, 중소기업 2455만원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올랐지만 중소기업만 1.4%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입 연봉은 대기업의 63.1%에 그쳐 기업 간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업의 신입 연봉이 42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4225만원), 건설(4167만원) 업종도 4000만원 이상이였다. 이외 기계철강(3981만원), IT정보통신·전기전자(3951만원), 석유화학(3925만원), 유통 무역(3900만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공공공사 공사금액 소폭 상향

조달청, 인건비 2.3%·환경설비공사 0.15% 증액

올해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공사금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단계 때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의 적용 기준을 변경해 7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제비용 중 이윤은 중전과 동일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상승했으며, 기타경비는 소폭 하락했다.

이를 종합하면 공사 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이 전반적으로 다소 상향 조정됐다.

간접노무비는 평균 2.3% 오르고 기타경비는 평균 0.5%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는 평균 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건축 및 토목공사 금액은 지난해보다 0.09%, 조정공사는 0.08%, 산업환경설비 공사는 0.15%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단계 때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지난해 발행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 통계와 건설경영분석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하며, 종류·규모·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용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과 총사업비 실시계획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용 적용기준을 게재해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예술이 숨쉬는 산단 조성

산단공단 문화센터 운영...통기타·생활공예 등 강좌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철)는 광주시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 내 광주하이테크센터 B동 204호에서 '2016년 행복산단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지속적 참여 기회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주 월·화·수 3회에 걸쳐 합창, 생활공예, 통기타 등 3개 강좌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문화혜택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산업단지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5년째 운영하고 있는 '통기타'는 산업단지 문화경진대회인 '산업단지 행복페스티벌'에서 2014년부터 2년 연속 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자체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합창' 강좌를 새롭게 신설해 근로자들의 삶에 심쿵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좌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려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070-8895-7909)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센터는 오는 15일(생활공예), 16일(통기타), 21일(합창) 등 차례대로 개강한다.

윤철 산단공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즐겁고 활기찬 일터, 행복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흥미에 부합하는 다양한 강좌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 초혼 | | 추천회원 | | 재혼 |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태우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엔드 B1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남가발